

#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



[Market Analyst] 강진혁 선임연구원 ☎ (02) 3772-2329 ✉ kjinhyeok@shinhan.com

## Trump 관세안 전격 공개에도 선방한 한국

금일 KOSPI, KOSDAQ은 각각 0.8%, 0.2% 하락했습니다. 간밤 공개된 Trump의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. 10%의 기본 관세(5일 발효), 15% 추가 상호관세(9일 발효) 예고됐고, 반도체·의약품 및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등은 당장 적용에서 배제됐습니다. 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'보복하지 않는 한 이번 상호관세율은 상한선'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면서 국내를 비롯해 일부 낙폭을 회복했습니다(한국 10~25% 사이, Nikkei225 -2.8%, HSCEI -1.5%). 외국인 1.4조원 순매도했지만 연기금(2,722억원) 수급이 하단을 지지해줬고, 양 시장 제약바이오 강세에 KOSDAQ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(삼성바이오 +6.0%, 알테오젠 +0.7%).

## 돌고 돌아 조선·방산

Trump의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 면역(조선·방산 등) 및 관세 무풍 지대(엔터 등)가 재차 부각됐습니다.

#특징업종: 1)희류: ○ 2)엔터: Trump 관세 위협 회피 + 한한령 해제 기대감(에스엠 +#.##%, 디어유 +#.##%) 3)정치테마주: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임박에 변동성 확대(오리엔트정공 +##.##%, 평화홀딩스 +##.##%)

## 1거래일

최근 공개된 USTR 보고서 ~ . 한미 FTA 다소 높은 수치가 제시됐습니다. 특히 미국이 제시한 관세가 상품수지 적자액/수입액인 만큼

한국 입장에서는 보복관세보다는 협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자동차 등 업종 지원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임.

#주요일정: 1)美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(21:30) 2)美 3월 S&P Global 서비스업 PMI(22:45) 3)美 3월 ISM 서비스업지수(23:00) 4)

## 주식시장 지표

| 구분    | KOSPI             | KOSDAQ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증가    | 2,667.70 (+0.13%) | 868.57 (-0.18%) |
| 상승 종목 | 342 (11)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하락 종목 | 518 (10)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주체별   | KOSPI             | KOSDAQ          |
| 개인    | -1,11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외국인   | 1,456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기관    | -552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자료: 신한투자증권

## KOSPI, KOSDAQ 장중 흐름

자료: Infomax, 신한투자증권

## 금일 주요 테마 상승률 상위

자료: 신한투자증권

## 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강진혁).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